

# 하이퍼 비칸 노튼 주론

HYPER

평가원의 quality로  
평가원의 난이도를 뛰어 넘는다

저자 임창선  
감수 차도빈

Hyper를 정복했다면  
수능영어는  
당연히 100점!



Orbi.kr

1등급이 되는 책

Designed By Orbi In Seoul

수능이 시행된지 약 20여 년 동안 수능 영어는 많은 변화를 거쳤고, 그에 따라 수능영어의 사교육 판도도 유연하게 변화하며 발 빠른 적응으로 뛰어난 생명력을 자랑해왔다. 가깝게는 그저 문제와 지문의 외형에 따라 간단한 풀이법을 제시하는 리딩스킬이 유행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지문 분석의 툴을 제공하는 이른바 '논리적 읽기'가 수능영어 시장의 대세가 되어 있다.

수능 국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방불케 하는 고난도 비연계 빈칸추론 문제가 수능영어의 상위권 변별의 수단이 된 지금, 전문적인 단락 읽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읽기'의 등장은 필연적이며, 정말 필요해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런 시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그러한 이론의 소개와 그 이론의 적용을 통한 풀이를 내세우는 고난도 비연계 대비서가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비서들이 그러한 양적 팽창을 뒷받침할만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단순히 사용되는 어휘들의 수준을 평가원의 가이드 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난이도를 높인 문제들, 원문으로부터 지문을 편집해내는 과정에서 손상된 유기성으로 인해 정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들(심지어는 지문 안에 있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경우도 보았다), 지문 안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개념어들로 인해 어려워진 문제들, 지문 자체가 좋은 글이 아닌 문제들 등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단지 그럴싸한 논리적 용어들로 포장되어 하나의 권위로 다가올 때, 고통 받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잘못된 선례를 통한 잘못된 학습 결과 등을 누가 보상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독해력이 부족한 저자들의 선부른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낸 문제의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해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 책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이다. 인류의 지성사에서 빛나는 석학들로 인정받은 학자 및 저자들의 뛰어난 글을 바탕으로 수능이 가진 가이드를 준수하며 다듬어진, 완벽하게 유기성이 보장된 지문을 이용하여 출제된, 그래서 출제자 본인이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독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의 객관성이 완벽하게 보증되는 문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난도 비연계 문제의 올바른 실전 연습을 제공하자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인 것이다.

언어의 표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소수의 이론들이 무용한 것은 아니나 그것만으로 창의성이 살아있는 고난도 문제를 정복할 수는 없다. 어찌보면, 함량미달의 고난도 비연계 대비서를 탄생시킨 것은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조금 함일 수도 있다. 부디, 부족한 이 책이 모든 고난도 수능 영어 문제 정복의 근본적인 길은 지문의 유기성을 믿는 정확한 독해를 통한 것이라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일깨우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란다.

# 이 책의 학습법

## 공부시기

이 책은 이론을 설명하고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까지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 등을 통하여 독해의 개념과 기본을 쌓은 이후에 이 책을 공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해설이 아닌 헛설이란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독해 기술의 이상적인 적용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paraphrasing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독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엇이 무엇의 paraphrase인지 찾아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기술은 정답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헛설은 특정 기술의 이상적인 적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헛설의 관점은 문제풀이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헛설은 실전에 임함에 있어,

그 지문이 어떤 문제의 형태로 가공되어 있든,

근본적으로 지문을 바라보는 진지함과 열정, 정확도의 향상을 촉구합니다.

헛설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지문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전제한 상태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필연적으로 팔과 연결되어 있고 팔이 당연히 어깨를 통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의 제한된 길이의 지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을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대조'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대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문의 유기성을 전제로 지문의 곳곳이 왜 존재하는지를 바라봄으로써

모든 독해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헛설인 것입니다.

## 목차

1 역대 최고 난이도 기출문제 Best 10 핫설	000
2 Hyper 빈칸 연습문제	000
3 Hyper 빈칸 실전 모의고사	000
4 빠른 정답	000
5 어휘	000
6 Hyper 빈칸 핫설	000

## 파트별 공부법

### Part I 역대급 기출문제 풀이

최근의 수능들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빈칸추론 문제와 그 핫설을 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핫설의 정독을 통해 고난도 지문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고난도 지문의 분석의 깊이를 더욱 더 깊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Part II Hyper 연습문제

Hyper 연습문제들은 위의 기출문제에서 익혔던 관점을 바탕으로 마음껏 분석해보는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재지 마시고,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 Part III Hyper 실전문제

실전문제들은 실전과 같이 연결어를 제외한 순수 빈칸추론 세 문제씩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실전처럼 한 세트를 짚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략 12분 정도를 넘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세트를 풀 이후에는 빠른 정답을 통해서 먼저 정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맞았든 틀렸던 핫설을 정독합니다.

실전문제 풀이는 가급적 하루에 한 세트를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세트를 풀고 완벽히 분석하는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 1

### 2014 수능 33번

Policymaking is seen to be more objective when experts play a large role in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when utilitarian rationality is the dominant value that guides policy. Through the use of the scientific method to determine the facts of any given policy situation, the power of social constructions is supposedly diminished, an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re discovered in an objective way. This process creates an illusion of neutrality and implies a transcendence of the pitfalls and inequalities commonly associated with policymaking. From this perspective,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emerge as the appropriate experts to be consulted in policymaking, while local citizen input and knowledge is often viewed as unnecessary. Scientific and professional policy design does not necessarily escape the pitfalls of degenerative politics. Scientif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often relies on a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that is limited to utility and rationality considerations. This approach to policy typically does not consider values and cultural factors that cannot be measured empirically.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can serve interests that ru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They \_\_\_\_\_ . [3점]

\* transcendence: 초월

- ① use empirically proven theories to reflect locals' input
- ② do stress cultural values rather than utilitarian ones
- ③ may be free from the inequalities of policymaking
- ④ can reinforce unequal and unjust relationships
- ⑤ reveal objective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 지문분석

① Policymaking is seen to be more objective when experts play a large role in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when utilitarian rationality is the dominant value that guides policy.

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이 그 정책의 창조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공리주의적 합리성이 정책을 이끄는 지배적 가치일 때 더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정책결정이

어떠하다: 전문가가 참여할 때/공리주의적 합리성이 지배적 가치일 때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 is seen to be more objective: 'is seen to'는 '~해 보인다'는 뜻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즉,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와 '객관적이다'는 전혀 다르다. 후자는 필자가 어떤 개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단언하듯 말하는 것이므로 주제의 방향성을 가지겠으나 전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

\* 정책결정이 객관적으로 보일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접의 'and'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두 개의 조건을 같은 성향으로 분류하여 우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 즉, experts = utilitarian rationality 로 보면, 전문가들은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결정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본다.

\* 어떤 추상적인 명제를 이해할 때, 그 명제가 본인의 배경지식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추상적인 명제의 이해는 결국 얼마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 경우 그 원 명제의 방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명제를 탄생시키는데 유용한 것이 반대 case의 추론이다.

experts = utilitarian rationality / experts가 아닌 사람 ≠ utilitarian rationality

이런 반대 case의 추론을 통해 만약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공리주의적 합리성을 가질 것이냐를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 더 큰 합리성을 가질 것이라는 보다 명확해진 이해의 방향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 ② Through the use of the scientific method to determine the facts of any given policy situation, the power of social constructions is supposedly diminished, an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re discovered in an objective way.

어떤 주어진 정책 상황에 관한 사실들을 결정짓기 위한 과학적 방식의 사용을 통해, 사회적 구조들의 힘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들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발견된다.

\* 과학적 방식을 사용하면 사회적 구조들의 힘이 약해진다고 함. 이것을 이용해 대조를 만들어보자. 즉, 과학적 방식 (scientific method) Vs 사회적 구조들 (social constructions).

\* 본문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필자의 주관을 나타낸다! 특히 대조가 이뤄진 경우 그 형용사들이 대조의 어느 축에 속하는지를 나눠봄으로써 지문 파악이 아주 간단해질 수 있다.

scientific - objective - experts - utilitarian rationality Vs social constructions

\* social은 '사회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독해에서 사용될 때 '인간관계에 관한'이라는 속뜻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social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으로 '사회적'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뭔가 인간관계에 관한'이라고 의미적인 해석을 해주면 그 때 비로소 scientific Vs social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어들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로 정리해두는 것은 고급 독해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

## ③ This process creates an illusion of neutrality and implies a transcendence of the pitfalls and inequalities commonly associated with policymaking.

이 과정은 중립성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정책결정과 흔히 관련된 함정들과 불평등의 초월을 암시한다.

\* this process: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re discovered in an objective way

연습 때 지시어의 대상을 파악하는 연습을 철저히 해두자!

\* an illusion of neutrality: 중립성의 환상이라고 했으니, 중립성을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 그렇다면, 도입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면 그 정책결정이 객관적으로 보인다'에서 나온 is seen to be more objective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neutrality가 깨진다고 했으니 그 이후에 나온 inequality는 당연한 결과.

\* social problem의 해결책을 objective way로 찾으려는 시도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결과: 중립적인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불평등을 초월한 것 같은 암시를 주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초월하지 못한다.

---

④ From this perspective,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emerge as the appropriate experts to be consulted in policymaking, while local citizen input and knowledge is often viewed as unnecessary.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에 관해 자문을 구할 적절한 전문가들이므로 나타나지만, 지역 시민이라는 요소와 지식은 종종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 social constructions - local citizen input and knowledge

\* 자꾸 이런 대조 관계의 양측에 새로 등장하는 표현들을 붙여보다 보면, 결국 주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저, 전문가들만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 그리고 그 문 제란, 사회적 불평등임.

---

⑤ Scientific and professional policy design does not necessarily escape the pitfalls of degenerative politics. Scientif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often relies on a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that is limited to utility and rationality considerations.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제작이 꼭 퇴행적인 정책의 함정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종종 실용성과 합리성의 고려사항들에만 제한되어 있는 특정 타입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

\* 과학적 전문지식은 너무 합리성과 유용성에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여기에 서 추가로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사회적 구조, 관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지식'이 추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⑥ This approach to policy typically does not consider values and cultural factors that cannot be measured empirically.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can serve interests that ru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They \_\_\_\_\_.

이런 정책에 대한 접근법은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관들과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제작된 정책들은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에 봉사할 수 있다. 그것들은\_\_\_\_\_.

---

\* empirical은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이다. scientific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는 단어이다. 사전적 의미는 '경험적'이지만, 이것은 현대 과학의 주요 속성인 '실험이나 측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다.